

제석(帝釋)과 함께 떠나는 신화(神話) 여행

마왕 파순, 그는 누구인가?

대개 신의 능력이 가장 돋보이는 경우는 평범한 인간이 욕망하는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는 것이다. 이는 신에게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며 인간에게는 즐거운 일이다. 하지만 인간이 욕망하는 것이 부귀영화가 아니라 해탈과 깨달음이라면, 이는 신이 들어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비록 인간이긴 하지만 인간이 가진 경계와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의지는 신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신과 인간 사이에 있는 이런 절묘한 구조는 인간으로 태어났어도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신을 뛰어넘는 성숙함을 이룰 수 있다는 보여준다. 결국 마왕 파순과의 싸움은 처음부터 부처님 스스로 해내야 하는 과제였다.

마왕 파순이 살고 있는 곳은 지옥이 아닌 천국

타화자재전왕인 마왕 파순은 욕계의 궁극에 사는 존재이다. 이런 욕계의 궁극에 있는 그는 인간이 욕망하는 온갖 쾌락의 감각들을 자유자재로 먹고 산다. 즉,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이아말로 타화자재전을 탄탄하게 지탱해주는 식량인 것이다.

흔히 우리가 온갖 환상을 품고 동경하는 '천국'이라는 하는 곳은 감각적인 쾌락이 넘쳐나는 욕계의 '하늘'을 뜻한다. 고통과 괴로움, 빈곤이 없고 아름다움과 즐거움, 쾌락이 넘치는 욕계는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천국이다. 하지만 이곳에는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고 질투도 있으며 무엇보다 인간보다는 훨씬 길긴 하지만 수명도 제한되어 있다. 즐겁지만 완전하지는 않은 것이다.

욕계의 하늘은 여섯 개의 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가장 먼저 사천왕이 각각 다스리는 사왕천이 그 입구를 차지한다.

그 다음은 부처님을 흠모하는 제석전왕이 살고 있는 도리천이다. 도리천에 살고 있는 제석전왕은 사천왕을 거느린다. 즉, 제석전왕은 사천왕의 직속상관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두 하늘은 매우 밀접한 관계이다.



삼화 김경수

중간에 있는 세 번째 '천국' 열마천은 축복 받은 신들이 살고 있는 곳이며 네 번째 '천국'인 도솔천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머물렀던 곳이다. 만족을 아는 신들이 모여 있는 곳이며 미래의 부처인 미륵불이 세상에 오기 전까지 머물렀던 곳이다. 다섯 번째 '천국' 화락천은 창조하고 기뻐하는 신이 살고 있는 곳이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천국' 이 바로 타화자재전이다.

마왕과 부처님의 필연적인 대결

타인의 감각과 쾌락을 자유자재로 소유함으로써 유지되는 타화자재전의 왕이자 신인 마왕 파순이 부처님의 마지막 적이 되는 것은 매우 재미있는 일이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을 것이 확실해지자 마왕 파순은 크게 괴로움을 느낀다. 온갖 쾌락과 즐거움을 만들어 내는 타화자재전왕으로써는 이런 감각을 이겨낼 수 있는 경지에 다다른 성인이 출현하는 것이 썩 반가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무릇 안티가 있어야 주인공이 더 돋보이는 법이 아니런가. 도리천의 주인은 제석전왕을 비롯하여 욕계의 모든 하늘들이 부처님을 보호했던 것과 달리 타화자재전왕인 마왕 파순은 자식까지 동원해 부처님을 집요하게 방해한다. **조민기 작가 · 칼럼니스트**



서터를 누르니 어느새 새는 부처가 되었네

'나는 산새처럼 살고 싶다' 펴낸 도연 스님



나는 산새처럼 살고 싶다
글·그림·사진 도연 스님
중앙북스
1만 3800원

어린 시절, 누구나 한번쯤은 새가 되기를 꿈꾼다. 푸른 창공을 나는 새를 동경한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를 만들었다. 한 스님은 새와 수행하며 사진을 찍고 글을 적어 책을 펴냈다.

《나는 산새처럼 살고 싶다》를 펴낸 도연 스님은 "새들은 내게 소중한 동반이며 부처이다"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도연 스님을 두루미를 주로 찍는다고 해 '두루미 스님', 혹은 지장산 골짜기에 컨테이너 토굴에서 홀로 수행을 한다고 하여 '컨테이너 스님'이라고도 부른다.

스님은 카메라를 목탁 삼아 사는 자연주의자이다.

책은 도연 스님이 15년간 자연과 가장 가까운 철원DMZ(비무장지대) 지장산 골짜기 2평 남짓한 컨테이너에 머물며 산새들과 지낸 이야기를 담고 있다.

스님은 책장마다 곤충박이, 박새, 딱새 등의

이야기를 통해 20그램이 채 되지 않는 작은 새들에게서도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삶의 소중한 지혜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전한다. 동시에 집입한 뱀과 사투를 벌이는 어미 새에게서는 사람보다 더 큰 모정을, 포식자의 집입을 알려주는 새에게서는 뜨거운 우정을, 애써지는 동지도 훌훌 버리고 떠나는 모습에서는 무소유의 미덕을, 먹이를 보내는 새끼 새들의 모습에서는 진진불(天真佛)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스님에게는 철새를 따라 천수만, 금강 하구, 순천만, 을숙도, 주남저수지, 우포늪 등에서 탐조기들과 함께 새를 촬영하는 것이 구도의 길과 같다.

도연 스님은 30여 년 전 모든 인연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스스로 운수남자(雲水衲子)의 길을 택했다고 한다. 스님은 주저앉기 직전의 허름한 티코 자동차에 야영텐트 하나, 코펠 하나, 침낭 하나와 승복 한 벌을 싣고 세상 속으로의 만행을 하고 있다. 낮에는 탁발을 하고 밤에는 숲 속에 텐트를 친다. 온 천지가 스님의 도량이고 식물과 곤충, 야생동물은 스님의 동반이었다.



스님의 사진 경력은 14살부터 시작했다. 도연 스님에게는 목탁보다 카메라가 익숙하다. 스님이 렌즈에 담은 새들은 이미 새가 아니다. 부처요, 보살이다. 서터를 누를 때마다 새들은 청안락한 풍경의 주인공이 되어 렌즈에 담겼다.

도연 스님은 다시 태어나면 새로 태어나고 싶다고 말한다. 새는 자유롭고, 철이 지나면 애써 지는 동지도 훌훌 버리고 떠날 정도로 욕심이 없으며, 날기 위해 뺏속까지 비우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도연 스님은 "12시간 동안이나 같은 자리를 지키는 수리부엉이를 보면 부영이아말로 인욕정진(忍辱精進)의 표상이요, 수처주주(隨處作主) 입처개진(立處皆眞)하고 있다"며 "부영이를 스승이자 부처로 심장부에 영입하고 있다"고 말한다. 부처는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으며 우리 주변 새들의 모습에서도 늘 발견할 수 있다는 것, 도연 스님이 15년 새들과 함께 하고 얻은 공부이다.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26인의 수행자로부터 배우는 인생공부



인생을 낭비한 죄
박원자 지음
웅진출판
1만 3000원

몸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만 먹고 철저한 무소유를 원칙으로 삼는 스님들의 생활은 수행자에 대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킨다.

지붕 뚫린 토굴에서 비가 새자 우산을 써가며 책상 앞에서 밤을 새워 '무아(無我)' 두 글자를 썼던 청화 스님, 일흔이 넘어서도 홀로 토굴에서 정진하며 한겨울에도 찬물을 머리에 부어가며 정진에 정진을 거듭한 대천 스님, 일평생 산문 밖을 나오지 않고 엄하게 계율을 지니고 철저히 수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년에 '내 일생의 실패작[一生敗闕]'이라는 글

을 남긴 한암 스님 등 여러 고승대덕의 삶을 듣고 싶다면 저절로 숙연해진다.

20여 년간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에서는 은둔수행자까지 수많은 수행자들을 만나 인터뷰한 저자 박원자는 그분들에게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를 물었다.

해국·성철·승산·설정·성수·월암 스님 등 26인의 수행자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잠시 일을 멈추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인생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태어나죠. 보통 사람은 각본대로 연출하고 살다가 갑니다. 그러나 불교는 시나리오를 새로 쓸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혹시 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수행을 하려는 마음만은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수행이 참으로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뱀 속에 사무치도록 노력해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 축서사 선원장 이은 기자

무여 스님

저자가 인터뷰한 수행자들은 한국불교사에서 한 획을 그은 큰스님에서부터 스님들 사이에서도 회자될 만큼 독하게 수행한다는 스님이다.

치열하게 살아온 수행자들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 그리고 저자가 던지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답을 준다.

저자 박원자는 인생이 무엇인지 궁금하기만 했던 스물세 살 때 불교와 처음 만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고 있다. 동국대 역경원 역경위원을 역임했으며, 그동안 많은 수행자들을 만나 취재하고 그분들의 삶을 그린 글을 월간 《해인》에 기고했다. '불교입문에서 성불까지'를 슬로건으로 한 인터넷 사이버 도량 금강카페(cafe.daum.net/vaira) 운영자로 활동하며 수행에 대한 글을 쓰고 도반들과 함께 정진하고 있다.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16~11/22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
2	망설일 것 없네 당장 부처로 살거나	도법	불광출판사
3	나를 치유하는 마음여행	서광	불광출판사
4	죽어야 나를 보리라	대행	한마음출판사
5	죽음 삶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안성두 외	운주사
6	엄마수업	법륜	휴
7	선재 스님의 이야기로 버무린 사찰음식	선재	불광출판사
8	네가 던진 돌은 내가 깨내라	기후	이자리
9	붓다를 죽인 부처	박노자	인물과사상사
10	소설 선	고은	김영사

※ 불서총편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가득한 공간

불교서적·음반총판
(주)운주사
(02) 3672-7181
www.unjusa.com

만 인류가 써도 써도
다함이 없는 보물창고!

불교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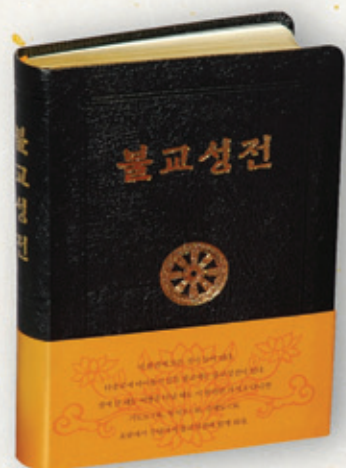


이 한권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절에 갈 때도 여행을 다닐 때도 이 한권만 가지고 다니면
기도도 OK, 독서도 OK, 수행도 OK.
요람에서 무덤까지 불교성전과 함께 하라.
타종교에 바이블이 있듯
불교에는 불교성전이 있다.

"진정 목숨 바쳐 돌아가
의지할 곳이다."

_여천 무비

황산스님 편저 / A5 / 1,103쪽 / 25,000원
맑은소리맑은나라



산사에서 들려주는 기후스님의 이야기 보따리

네가
러진
죽음
네가
로
기러나라

미래에 불행이 닥칠 때까지 지레 겁을 먹고 소극적으로 살기 보다는 굳은 신념과 큰 희망을 갖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한 지혜는 오직 자신을 살피는 깊은 선정력과 따뜻한 사유에서만 나온다. 참 지혜는 언제나 축복한 것이다.

지금 이순간, 그대가 꺼내야 할 돌은 무엇인가?

기후스님 / A5 / 312쪽 / 13,000원 / 이자리

서적·음반 구매에 관한
모든 문의는 (주)운주사
(02) 3672-7181
www.unjusa.com

